

December 11, 2016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송	임재(하늘의 문을 여소서)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411장 (통473)	
Prayer 기 도	김경식 장로	
Announcement 교회소식	사회자 Presider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마가복음1:1-8	
Choir 특 송	성가대찬양	
Sermon 말 씀	김원기 목사	
" 기쁨의 시작 "		
● Prayer 기 도	다같이 Together	
● Benediction 축 도	김원기 목사	

오후 찬양예배	❖ 주일 오후 1:30
☐ 공동의회 리더모임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
☐ 말씀: 아브라함을 말하다2	☐ 본문: 롬4:16-25
☐ 기도: 합심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월요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 교육부 예배	❖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구역별 모임 안내	
☐ 고구마 - 구역장 : 최영애권사	인도 : 성기현장로
☐ 감자 - 구역장 : 김옥련권사	인도 : 사라톨집사
☐ 무 - 구역장 : 김봉재권사	인도 : 황창원전도사
☐ 배추 - 구역장 : 새 가족부	인도 : 김원기목사

- 2016년도 표어 "예수님 처럼, 예수님 처럼"(교회 역사 가족)
- 이달에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 12월달 행사안내 ==축 성탄==
11일: 공동의회, 남녀선교회 (고구마)
18일: 구역예배 (감자)
25일: 성탄절연합예배 (여선교연합)
31일: 송구영신예배(성찬식)11시 분당
- 예배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 2017년 달력이 준비 되었습니다.
- 다음주(18일) 장선애전도사님 심방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성경공부(7:30 pm)
#매주 토요일 커피브레이크(6:00 am)
- 환우성도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이인순권사, 최금자권사, 김옥련권사, 김민준, 성기현장로)
- 성가대 대원을 모집합니다.(문의:성기현장로)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토요새벽기도: 12월10일 성승록권사 17일 장정남권사
#기도제목: 환우성도들을 위해,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 교육부를 위해, 교회의 영적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소식:성기현장로님가정 시카고 가족방문중

다음 주일 예배위원	
☐ 기도 : 1부- 합심기도	•2부- 이화정장로
☐ 안내 : 1부- 황창원전도사	•2부- 황동근집사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교회를 섬기시는 분	
☐ 행정목사 : 이철주	☐ 시무장로 : 김경식 성기현 조홍진
☐ 교육목사 : Ariel Flores	☐ 협동장로 : 이화정
☐ 전 도 사 : 황창원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	선교헌금: \$
주일헌금 : \$	
감사헌금 : \$	교육부헌금: \$
지난주일 합계 : \$	

전도서9:7-10 /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전도서의 주제이다. 본문은 헛되다는 인생을 말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임을 부인할 수 없는 기자의 고백이다.

1.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름답다(7)

“-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리고 즐겁다. 식탁에는 대화가 있고 웃음이 있다. 서로를 위한 배려가 있는 곳이 식탁이다. 기쁨이 없이 먹는다는 도리어 화다. 먹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은 먹는 공동체에게 시작한다. 가족을 식구라고 말한다. 이유는 같이 있기 때문이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고 늘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면 즐거운 일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2. 의복을 희게하라(8)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의복을 희게 하라-1)부지런 하라 즉 때가 묻을 수 있다. 그런데 때가 묻은 상태로 다니지 말고 늘 깨끗함을 유지하라. 2)더러운 곳에 가지 말라 즉,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피라. 아예 더러운 곳에 가지 말라. -향 기름을 그치지 말라: 기름은 주로 제사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라 경배하라, 기도하라.

3. 가정에 충실하라(9)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몫이라”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몫이 아내이며 아내가 있는 가정이다. 이것을 몫이라고 한다. 우리의 일하고 수고한 인생의 결과물이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뒤집어져도 가정에서 아내가 자리를 잡고 자식을 건수 잘하고 밥 잘해서 식구를 먹이고 하는 것이 가정 생활인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복이다. 아내는 가정을 웃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시128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 일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한다(10)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 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흠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스흠은 지옥이라고 해석하고 무덤이라고 해석한다. 스흠의 특징을 잘 말한다.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곳이다.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난 뒤 휴식이 필요하다. 쉬어야 한다. 그런데 일이 영 없어지거나 못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지옥 같다는 것이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열심히 일해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천국이다. 지옥은 분명히 가보지 않아야 알 수 있다. 일이 없다. 심심한 것이다. 거기다 고통까지 더한다면 정말 가지 알아야 한다. 지금 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은혜요 천국이다. 지금 땅 흘리고 우리를 찾고 일을 도와 달라고 한다면 정말 천국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 있으니 감사해야 한다. 지금 나에게 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이보다 더 천국은 없다. 이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